

'제6회 완주품앗이 상영회' 개최

완주미디어센터 · 8개 읍·면 주민공동체 협업... 읍·면 곳곳서 7편 작품 순회 상영

완주군 고산면에 위치한 완주미디어센터와 8개 읍·면 주민공동체가 뜻을 모아 '제6회 완주품앗이 상영회'를 8월 1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다.

완주품앗이상영회는 읍·면에서 활동 중인 문화시설이나 주민공동체와 완주미디어센터가 협업하는 배급상영회로 한국영상자료원 '2024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다.

커뮤니티네트워크워크숍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고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가 협력한다.

상영작은 <막걸리가 알려줄거야> 등 총 7개 작품으로 지난해까지는 장편 독립영화 위주로 상영했지만 올해는 단편과 고전, 상업영화까지 폭을 넓혔다.

안중환 완주미디어센터장은 "올해는 연령대와 계층별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작품을 준비했다"며 "특히 이번 순회 상영회에 운곡지구 모바일레도 입주주민이 참여하여 완주군의 미디어문화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완주군 고산면에 위치한 완주미디어센터와 8개 읍·면 주민공동체가 뜻을 모아 '제6회 완주품앗이 상영회'를 8월 1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다.

완주품앗이상영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완주미디어센터로 문의(063-262-1895)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군산근대미술관 이철규 작가 초대전

바다로 둘러싸인 '군산' 모티브로 한국화 작품 15점 선보여

군산근대미술관(구 18은행)에서는 이철규 작가 초대전 '군산산수 群山水'가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이철규 작가의 고향인 군산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개인전으로 산, 강, 바다로 둘러싸인 도시인 '군산(群山)'의 특징 요소를 모티브로 수묵과 금속의 조합을 통해 군산의 고유한 분위기를 표현한 한국화 작품 15점을 선보인다.

특히 작품 전반은 수묵과 금속의 합일을 통해 이철규 작가의 독창적인 예술관을 다차원적으로 표현한 것이 눈에 띈다. 아울러 한지에 그려진 수묵화와 그 위로 입혀진 순금박으로 표현된 작품들은 보는 이들에게 한국 전통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전달한다.

이철규 작가는 우석대학교 동양학과 및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현재 예원예술대학교 미술조형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32회의 개인전 및 다수의 초대전, 그룹전에 참여했으며 전북청년미술상, 대한민국 청년작가상, 우진청년작가상 등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한편 군산근대미술관에서는 매년 군산 출신의 원로작가 초대전을 열고 있으며, 그



외에도 타 기관 연계 기획전과 자체 기획전 등으로 연 4회 정도 전시를 통해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 군산 시민들에게도 우수한 미술 작품의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미술주간행사 준비상황 공유 · 프로그램 접근방법 논의

전북도립미술관, 시·군 공립미술관 학예연구직 15명 대상 워크숍 개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지난 25~26일 이틀 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공립미술관 학예연구직 15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6개 시·군 공립미술관을 방문해 전북미술주간행사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전시 및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논의했다. 특히, 서재영 무주부군수가 연석회의에 방문해 공립미술관과의 연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열기남 순창부군수는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하기도 했다.

30일 전북도립미술관에 따르면 매일 7개 시·군 공립미술관 학예연구직 연석회의를 통



김제벽천미술관 단체사진



무주최북미술관 단체사진

해 학에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기획 전시를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 있다. 2024년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 시·군 공립미술관 공동기획 전시는 3월부터 현재까지 6만3,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한편 9월 전북미술주간에는 미술과 여행을 결합한 공립미술관 1박2일 투어를 준비 중이

다. 이애선 관장은 "이번 전북미술주간행사에는 각 미술관 학예연구사의 도슨트와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즐기고, 공립미술관은 상호 협력과 소통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고창문화도시센터, 어르신 치유평화 원예자격증 프로그램 운영

고창문화도시센터가 근대문화유산 조양관에서 매주 목요일 '어르신 치유평화 원예자격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창 어르신과 청장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 25일을 시작으로, 매주 목

요일 오후 6시30분, 총 12차시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에게 원예의 효용성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참여자들은 취업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의 다

양한 축제 및 행사에서 원예 전문가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고창문화도시센터 이문식 센터장은 "고창 어르신과 청장년들이 원예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 기쁘다"며, "자격증 취득을 통해 지역 사회에 원예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군산시립교향악단 하우스 캔들 콘서트 'MBTI로 즐기는 클래식'

군산시립교향악단의 하우스 캔들 콘서트 III 'MBTI로 즐기는 클래식'이 오는 8월 20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하우스 캔들 콘서트는 소규모 관객들이 연주자와 가장 가까운 무대 객석에 앉아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형식으로, 기존의 콘서트와 달리 연주자와 함께 교감하며 생동감 있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매력 있다.

캔들조명의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펼쳐질 이번 공연에서는 이명근 지휘자의 재치있는 해설과 함께 작곡가의 음악적 특성과 그들의 MBTI를 유추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연주곡으로는 탈란 수사토 <르네상스 무곡>과 푸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기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함께 살기 위해>, 베르디 오페라 돈 카를로 <함께 살기 위해>, 브람스 <집시의 세레나데> 등 주요같은 명곡들이 연주된다.

홍양숙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대중들에게 친숙한 소재로 찾아온 이번 공연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행복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초중학생 이상 입장 가능하며 전석 무료 공연이다. 예매는 7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에서 할 수 있으며, 예



매한 티켓은 공연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공연장 로비에서 수령할 수 있다.

기타 공연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립교향악단 사무국(063-454-5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